

# ‘김용균법’ 합의... 조국 31일 국회 출석

###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연장 ‘유치원 3법’ 합의 끝내 불발 패스트 트랙 처리 가능성



“이제 됐어요”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1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전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공항 갑질’ 김정호 국토위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항 갑질’ 논란으로 불의를 빚은 김정호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토위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앞에 사과했다”며 “원내대표로서 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으로서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토위 소관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사보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어느 상임위로 이동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상임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상임위는 지도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 의원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때 이어 “김해신공항 검증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항공사가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 반감을 확산시켰다. 거센 비판에 부딪힌 김 의원은 결국,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사과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선거제, 비례성·대표성 강화해야”

### 민주 의총... 선거제 개혁 입장문 발표·정책투어 여론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총 종료 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쟁점과 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개특위가 연장되면, 앞서 5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에 근거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정개특위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또 그동안 12개 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진행한 ‘정책투어’를 통해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국민 여론을 공유했다. ‘정책’은 경청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에게 들은 바를 정책과 법안에 녹여내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 대표는 “내년 봄에 (정책투어를) 한 번 더하면 어떨까 싶다”며 “소외지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방문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얼어붙은 민심 ... 문대통령 지지율 43.8%

### 김태우 수사관 논란·김정호 ‘공항 갑질’ 악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심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데드크로스(40%선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심상찮은 민심의 흐름을 방지할 경우, 지지 기반 붕괴와 함께 개혁과제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12월 4주 차 ‘주중 동향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3.8%를 기록했다. 40% 저지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3주 차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3.3%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가 늘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라는 호재는 각종 악재를 이겨내지 못했다. 민생 경제의 악화로 민심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청와대와 여당발(發) 악재로 인해 부정평가가 51.6%까지 이르렀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 선을 넘어선 것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을 둘러싼 ‘폭로 정국’은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개인 일탈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당의 총공세와 언론의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여기

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이라는 여당발 악재가 겹쳤다. 여론 정서를 건드린 민감한 사안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을 사보임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민심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흔들리는 민심에 대한 해법에 고심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생 경제를 넘어설 메가 이슈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있지만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 카드의 효과도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다. 결국 한

반도 평화 문제와 경제를 연동할 수 있는 대항 카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중도층의 이탈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36.7%에 머물렀다. 중도층 부정평가는 60.3%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상황에 놓이면서 진보층 재결집 흐름도 엿보이지만 대세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초반 중도층과 청년, 자영업자 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성 정치 참여 확대·신인 발굴 전략은

### 민주 전남도당 이그나이트 발표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보성 다비치콘도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제1회 전남도당 여성당원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철우 보성군수, 김한중 전남도의회 부의장, 여성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보미 강진군의

원(비례)과 김종숙 해남군의원이 ‘나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 ‘여성 정치인 유리천장의 벽을 넘어’란 제목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한 과정과 여성 정치인의 험난한 현실정치 적응 과정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승욱 구례군의원(여성 정치인으로서 겪어온 길고 꿈), 이연숙 고흥군의원(자기 연계를 넓혀라) 등 10명의 여성당원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소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수익성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1억7000만원(일시불 조정가)
- 현재 보1500만원에 월8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

## 다스코이진 세라코이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상인선 분
  - 태양광발전소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인선권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상인선권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설치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외 단대리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유망지역
  - 태양광 영업 실적 우수
  - 태양광 영업 실적 우수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G, 조력발전, 풍력발전, EPC, O&M사업  
문의처: 영업부 05340-7542, jshang@dasco.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영업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수입관리	R&D	· 전년도 실적 관련 인센티브 (경력직)	나주
		생산관리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코	이	생산관리	R&D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영업	영업	· 영업 관리학과 관리자 우대	

· 접수처: 영업부 05340-7542, ecm@dasco.co.kr, 접수기간: ~ 1월 4일까지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